

성숙을 위한 7가지 명령 7(시23:1~6)

※ 성숙 - 성경을 먹으라 /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 선교로 헌신하라 / 제자로 헌신하라 / 인도하심을 받으라

**들어가기** 사람은 누구에게나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인다는 공통적인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다. 직장선택, 결혼문제, 소명의 문제 등 선택과 결정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선택의 문제 앞에 세워지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례길을 걷는 우리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둘러보기**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왜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을까요?(23:1)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호와라고 이름하십니다.(출6:2-4) 엄밀한 의미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경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언약을 설명하실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것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성실과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런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만물을 경영하시는 그 분이 또한 개인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 내면에 체험으로 들어온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합니다. 한 사람이 양이라는 고백은 중동지역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이었습니다. 양은 고집 센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더니”라고 고백합니다.(사53:6) 다윗이 자신을 양으로 놓았던 것을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시23편의 앞 시 22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하는 고난의 시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만이(시22편)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고백(시23편)할 수 있습니다.

**Q :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암송해봅시다(시23:1), 이 고백에 대한 의미에 대해 말씀을 확인하며 살펴봅시다.**

- ① 여호와(출6:2-4)    ② 목자와 양(사53:6)    ③ 시편 22편    ④ 시편 34:10.

그래서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어서도 지독한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물량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려움과 역경과 결핍의 현장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노래합니다.(23:2) 중동지역에는 거의 풀밭이 없습니다. 목자는 어찌다가 발견한 풀밭이 있으면 거기에 양떼를 먹이고, 내일 아침 허기진 배를 채울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목자는 반드시 내일 먹일 양식을 확인한 후에 양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마6:34) 내일의 것은 목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다”라고 고백합니다.

겉이 많은 양은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목자는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흐르는 물을 막아 양들로 물을 먹입니다. 설 만한 물가는 목자가 철저히 준비해 둔 물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23:3)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지키거나 완성할 수 없기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우리의 운명과 인생은 여호와와의 이름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의 길”은 인류 역사 속에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뜻합니다.(요14:6)

**Q :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시23:2-3)? 푸른 풀밭과 설 만한 물가는 무엇을 의미하니까(마6:34)? 또한 ‘의의 길’ 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롬3:21, 요14:6)?**

그런데 목자는 왜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갈까요?(23:4) 목자들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어 목양합니다. 겨울에서 그 다음해 봄까지 목자들은 양을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해 지기 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목자는 양떼를 몰고 먼 길을 떠나 가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옵니다. 먼 여행길에서 역설적이게도 깊은 골짜기에서 양들에게 좋은 영양분을 주는 식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의 여행이 목자에게는 긴 여정 중에서 양과 가장 밀착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맹수의 위협 때문에 목자는 양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은 영양 많은 풀을 먹고 가파른 언덕을 넘으면서 근육이 붙고 몸이 자라게 됩니다. 외롭고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양들은 풍성하여 지고 목자의 임재를 통하여 목자를 배우게 됩니다.

양들이 먼 여행길의 상처를 안고 돌아올 때, 목자는 식탁을 차려 주십니다.(23:5)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창기와 죄인들과 식사하셨듯이,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회복과 치료를 위하여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날이 오면 성도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계21:4)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나를 계획하고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정확히 아셔서 인생의 결말을 준비하는 분이십니다.

**Q :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시23:4-5)? 주님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계21:4)?**

**나오기** 그것을 6절에서 여호와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23:6) “선하심”은 히브리어 ‘토브’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입니다.(창1:31) 완전한 아름다움과 풍성한 계획을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넘치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완성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을 의미합니다. 계획하신 분이 성실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 현재의 나의 어려움(진로, 건강, 관계, 결혼 등)을 고백하고, 시편23편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지를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서로 고백해봅시다.

▶ 기도 : 卍 선하신 목자, 卍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담당목사님과 리더들의 강단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해

5월 12일 일꾼 선출 위해, 체육대회를 위해서, 각 학교와 제자훈련을 위해서,